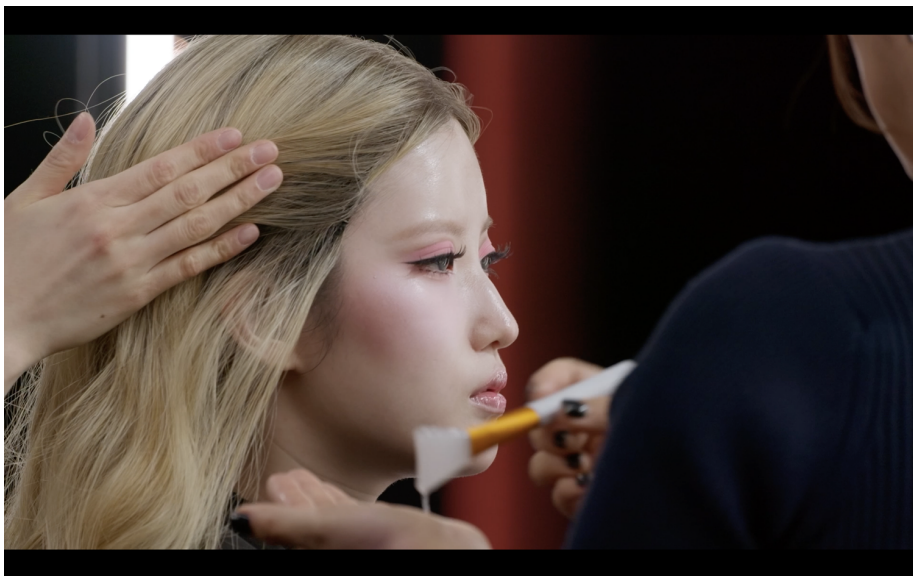


##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 남자 시청자들도 올렸다! 여자들의 전유물을 넘어선 K-뷰티 신드롬!

2025. 10. 22.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이 공개 3주차에도 쿠팡플레이 인기작 1위를 이어가며, 공개 첫 주 대비 시청량 748%, 약 8.4배 증가라는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뷰티를 넘어 치열한 예술과 기술의 승부가 펼쳐지는 무대로 여성은 물론 남성 시청자까지 사로잡으며, K-뷰티 서바이벌의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K-뷰티를 대표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색깔로 치열하게 맞붙는 초대형 메이크업 서바이벌이다. 매주 공개와 동시에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기존 뷰티 팬을 넘어 남성 시청자와 메이크업을 처음 접한 이들까지 단숨에 사로잡고 있다.

“메이크업은 립밤밖에 모르는 남잔데 그냥 쪽 봤다”, “메이크업 하나도 모르는데도 너무 재밌다”, “다들 너무 프로고 멋있다”, “<흑백요리사> 이후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구성적으로 완벽한 서바이벌 간만임”, “흑백요리사처럼 두근두근대는 서바이벌 방식이랑 엄청난 메이크업 하는 것을 보는 것 정말 재밌다!”, “메이크업 능력을 알아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프로라 너무 재미있게 잘 보고 있다”, “왜 <흑백요리사> 느낌이 나지 했는데 같은 제작사인 스튜디오 슬램에서 만들었네” 등 다양한 호평이 이어지며 메이크업 분야를 새롭게 접한 시청자들은 물론 남성 시청자들의 빠른 유입과 함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남성 시청자들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는 데에는, 메이크업을 단순한 ‘꾸밈의 도구’가 아닌, 아티스트 손끝에서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는 ‘예술적 기술’로 풀어낸 점에 있다. 전혀 다른 캐릭터가 창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시청자들은 메이크업이 창의성과 정교함이 요구되는 고도의 예술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평이다. 여기에 화려한 색감과 독창적인 콘셉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완성해야 하는 긴장감이 더해지며,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한 짜릿한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다.

<저스트 메이크업>은 장르형 예능의 선두주자 스튜디오 슬램과 글로벌 콘텐츠 스튜디오 SLL이 새로운 도전으로 선보이는 초대형 메이크업 서바이벌로, 메이크업을 무대 위로 끌어올려 또 하나의 새로운 서바이벌을 창조했다. 단순한 실력 대결을 넘어 참가자들의 도전과 성장을 담아낸 <저스트 메이크업>이 성별과 고정 타깃을 넘어선 새로운 서바이벌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6화까지 공개된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은 참가자들이 직접 뽑은 우승 후보 상위 4인 파리 금손, 손테일, 퍼스트 맨, 맥티스트가 팀장이 되어 K-POP 그룹 투어스(TWS), 스테이씨(STAYC)의 무대 메이크업을 맡아 맞대결을 펼치는 미션으로 또 한 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K-뷰티와 K-POP의 역대급 만남을 통해 메이크업을 예술 퍼포먼스로 확장시키며 메이크업을 전혀 몰라도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평을 끌어내고 있다.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은 이러한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팬들과 함께하는 정주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25일(토)부터 11월 8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낮 12시, 쿠팡플레이 앱에서 열리는 이번 이벤트는, 1화부터 공개된 회차까지 함께 정주행하며, 라이브 채팅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된다. 쿠팡 와우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 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되며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